



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

Newsletter

2021년 / 7월 1주차

■ 연구원 소식

동아리 지원 사업 공모전 마감(6월 14일~6월 25일)

지난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2021년 한국고전문화연구원 동아리 지원 사업에 모두 다섯 건의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체험, 답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신청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6월 30일(수) 열리는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정결과는 다음 주 뉴스레터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정된 동아리 지원사업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구원 운영위원회(6월 30일)

1년여 만에 연구원 운영위원회가 대면 방식으로 오는 6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동아리 지원 사업 공모전 선정심의회와 회원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역시 다음 주 뉴스레터에 전해드리겠습니다.

■ 역사 속의 오늘

○ 장례식을 통해 이전 된 광장의 소유권 - 1987년 7월 9일



1987년 6월 9일, 연세대 정문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쓰러진 이한열은 27일 만인 7월 5일 숨을 놓았다. 그가 피격 당하고 숨을 놓을 때까지 민인들은 광주의 피칠갑으로 탄생한 전두환 정권과 사생결단의 승부를 벌였다.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수용이라는 요란한 사기극 이후 항쟁의 열기가 식기 시작하고 숨을 놓은 그의 장례식은 연세대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영결식에서 故문익환 목사는 명연설을 남겼다. 그것은 수사학으로 또 선전술로 구성된 연설이 아니었다. 그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전태일 열사여. 김상진 열사여. 장준하 열사여. 김태훈 열사여. 황정하 열사여. 김의기 열사여. 이재호 열사여. 이동수 열사여. 김경숙 열사여. 진성일 열사여. 송광영 열사여. 박영진 열사여...박종철 열사여... 광주 2천 영령이여..." 불려진 이름엔 학생도 있고 노동자도 있었다. 모두가 역사의 역류를 순류로 바꾸고자 자신의 삶을 당겨쓴 민인들이었다. 문익환 목사는 다만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불러 산 자들의 가슴에 불을 당겼다.

광주의 아들 이한열은 어머니 배은심 여사와 함께 광주로 향했다. “한열아 가자. 이제 우리 광주로 가자.” 어머니의 피맺힌 몸부림과 함께 광주로 가기 전 이한열이 향한 곳은 서울시청 광장이었다. 그날 이전 수천 수만 수십만 갈래의 흐름으로 1987년 6월을 관통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광장에 모였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짝 들어찬 사람들의 홍수였고 사태였다.

이날 우리 현대사에 광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총칼을 앞세워 권력을 찬탈한 자들도 언론을 앞세워 민인들을 무민(贅闕)케 한 자들도 이날 모인 이들에게 광장의 소유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 앞 광장에 모였기에 누군가의 통제가 통할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할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 질서가 있었고 평화가 있었다. 그날 그곳에 모였던 이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났지만 가슴 속으로는 뿌듯함이 솟았을 것이다. 이한열의 상여 앞에서 시민들은 조기게양을 외친다. 광장 주변의 모든 건물 태극기가 조기로 바뀌었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서울시청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 의해 태극기의 높이가 낮아졌다. 불과 보름전만 해도 그곳에 열명이 모이건 백명이 모이건 권력은 최루탄과 곤봉으로 응수했지만 이날은 그러지 못했다. 태극기를 조기로 만든 이들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한 날이었다. 그날로 우리 현대사에 광장의 소유권은 시민에게 이전되었다.

2002년 월드컵을 응원하던 붉은 악마의 함성도, 미군 장갑차에 쓰러진 신호순과 심미선을 기억하자는 촛불도, 2008년 미친 소를 수입하지 말라는 외침도 87년 7월 9일 열린 광장의 후예들이었고 그 소유권은 보란 듯이 시민들에게 유전되어 왔다. 그 뿐인가. 물대포로 농민의 목숨을 멈추게 하고 광장의 소유권을 다시 찬탈하려했던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것도 광장에 서있던 이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광장의 소유권이 다시 민인들에게 돌아 온 날, 그날 이후 우리 현대사는 민인들이 역사의 샘을 만들고 마침내 강이 되어 바다로 이르는 변함없는 이치를 보여주고 있다.

● 우리 연구원 협약기관인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에서 미숫가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유두희 관장을 비롯해 복지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회원들이 적극 추천하는 미숫가루 특판행사를 안내드립니다.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은 연구원 사무국 (063-286-3005)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중량 : 1Kg / 가격 : 10,000원** -

고소한 내고향 웰빙 미숫가루

입맛이 없거나 거르기 쉬운 식사를 든든하고 간편하게
뛰어난 소화 흡수와 영양공급에 도움
여름철 열음을 띄워 시원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법

-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면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고
- 수험생, 청소년, 어린이, 임산부 영양 간식 및 어르신 영양식으로 최고
- 진하고 고소한 맛 - 미숫가루 3큰술, 우유 200ml, 꿀 또는 올리고당 1큰술
- 단백한 맛 - 우유 대신 물 200ml를 넣어주세요.
- 보관법 -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18 ~ 22℃)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재료

- 정읍지역에서 생산된 1등급 곡식만을 엄선하여 제조 (보리74%, 찹쌀7%, 현미찹쌀7%, 메주콩6%, 약콩6%)
- 칼로리 358kcal(100g) 무기질,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며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

무방부제, 무색소, 무설탕 곡류이외에 다른 화학 성분 무(無)사용

무료 택배 배송 5kg이상 주문 시 무료 택배 배송

무방부제
무색소
무과당

웰빙 미숫가루 판매 수익금은 노인복지사업으로 쓰여집니다.

- · · 중량 및 가격 **1kg 10,000 원**
- · · 주문 전화 **063) 571-9051 / FAX 063)571-8051**
- · · 주문 방법 **전화 및 방문 주문 (5개 이상 무료 배송)**
- · · 계좌 번호 **농협 351-0744-7064-13 성공회정읍교회**

제조원 : 농업회사법인 콩사랑(영업허가번호 제12-14호)
전북 정읍시 칠보면 죽현리 죽촌길 92-18(☎063-538-1900)